

15년 만에 영광서 전남양대체전...성공 개최 '총력전'

전남체전 17-20일·전남장애인체전 29일-내달 1일 선수단별 숙소 배정 완료·응급상황 협조 체계 구축 등

영광군이 15년만에 전남도민의 최대 스포츠 대축제인 전남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제63회 전남체육대회,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뛰어라 위대한 영광, 열여라 희망찬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영광스포티움 등 24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양대체전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영광에서 열린다. 전남체전은 22개 시·군에서 24개 종목 2만여명이 참가하고, 전남장애인체전은 21개 종목에 1만5천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체전 기간 중 영광군을 방문하는 응원단과 관광객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선수는 물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해 ▲스포츠와 문화·역사·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제전 ▲도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준비하는 참여제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경제제전 ▲선수들과 관람객의 안전·편의를 우선시하는 안전제전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도 지난해 7월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기관·사회단체 등 150여명이 참여해 대회를 홍보하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중이다.

군은 우선 양 체전을 위해 모두 45개 경기장을 선정, 쾌적한 경기장 제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혼잡 예상 지역을 개선하고 임시 주차장 설치, 셔틀버스 운행,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등 주 경기장을 중심으로 교통통제계획을 수립했다.



영광군이 15년만에 전남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를 오는 17일부터 개최하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은 전남체전 D-100일 기념 행사(오른쪽),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모습.



영광군이 15년만에 전남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를 오는 17일부터 개최하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은 전남체전 D-100일 기념 행사(오른쪽),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모습.

선수단별 숙소 배정도 마쳤으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소방서 등과 협조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양 체전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800여명을 모집, 발대식을 가졌으며 '깨끗한 영광 만들기 일제 대청소'와 연계해 시민단체의 청결활동에 대한 자율참여도 유도한다.

군은 체전의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을 역대 체전과 차별화하기 위해 총

감독, 연출감독, 기획감독을 선임해 연출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체전 개최식은 오는 17일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영광의 길, 전남도를 새롭게 상상하다'라는 콘셉트 아래 시간의 흐름 속 변화하는 영광의 길을 세련되고 정감 있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 도민체전 최초로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성화가 동시 봉송된다.

성화는 15일 백수해안도로에서 채화돼 동시 출발식을 가진 후 2일간 음면을 봉송하고 17일과 20일께 주 경기장에서 각각 점화된다.

개회식 다음날인 18일부터 이틀간 영광 만남의 광장 특설 무대에서는 체전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 군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열린다. 동춘서커스를 시작으로 유명 가수 축하공연, EDM 콘서트 등 음악축제, 플라마켓,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행사가 펼쳐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문화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양 체전을 역대 체전과는 확실히 다르고 재미있게 준비해 영광의 문화와 정체성을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4년 양대체전이 전남도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문화재 현안사업 국비 확보 '사활'

문화재청 방문 최응천 청장 면담 전라병영성 복원 등 65억 건의

강진군이 건축재정 기초 속에 문화재 현안 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문화재청을 방문해 강진 문화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과 고려청자요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강진원 군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면담해 문화재 현안사업 등에 대한 국비 65억원을 건의했다.

강진원 군수는 현안사업인 '강진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조기 완공'과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고려청자요지 공원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26년째 추진 중인 강진 전라병영성 보수정비 사업은 조기 완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국내 최조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병영성의 대형 합



강진원 강진군수(오른쪽)가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국비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정 유구(遺構)와 발굴 원료 후 성 외부에 미정비된 해자(壕子)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시급성을 덧붙였다.

그는 문화재 활용면에서 한글묵 옛 담장(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병영성 홍교(전남도유형문화재), 하멜기념관과 '병영 불금불과', '2024년 반값 가족여행 강진' 등 지역 문화재의 축제를 연계하기 위해 전라병영성의 활용 방안의 지를 적극 피력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강진군의 건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문화재원들을 알리고 활용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느꼈다"며 "군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지역의 문화 유산을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고유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강진의 발전을 이룩하자"며 "강진의 소중한 문화 자원들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2024 목포시민아카데미' 첫 강좌 개최

23일 소설가 김영하 초청 소통 강연

목포시는 11일 "소설가 김영하 작가 초청 목포시민아카데미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좌는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이야기'라는 주제로 목포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김영하 작가는 1995년 등단한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여행의 이유 등을 집필했으며, tvN 방 송프로그램 ▲알쓸신잡 ▲세바시 등에

출연해 유쾌한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 김 작가는 '소설과 영화, 그밖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을 확장시키고, 깊은 수준의 소통을 가능토록 하는지 풀어낸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공감과 소통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야기가 주는 힘을 이해하고 인문학 교양을 한층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4회 연속 '최우수'

전국 군 단위 1위...작년 재정 집행률 84.3% 달성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하며 4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기록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조2천180억원의 재정을 운용해 1조313억원을 집행, 84.3%의 우수한 집행률을 달성했다.

군은 지난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6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와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사례관리·이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재정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공사대금의 선금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으로 지출확대를 극대화했다.

이번 재정집행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 하반기 목표액인 1천615억원 대비 706억원을 초과 집행하고, 144%의 집행률을 달성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었다.

명현관 군수는 "재정집행 최우수 평가는 일하는 군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결과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함은 물론 주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며 "올해도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



해남군이 행안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하며 4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해남군청 청년공무원들. <해남군 제공>

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안군, 지역관광 활성화 코레일 광주본부 '맞손'

관광 인프라 활용 여행 상품 개발·홍보

신안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광주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박우량 군수와 임석규 코레일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신안군은 협약을 통해 군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철도 여행 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의 관광사업 진흥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철도 여행상품 개발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신안군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석규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신안군의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매력 있는 철도 여행상품 개발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1004선 신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

의견수렴 대상은 손불, 신광, 해보, 월야 4개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방사선 환경영향 및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이 있으면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작성 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주민 공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콜센터(061-357-7371·3)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연수 기자

함평군,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주민 공람

함평군은 11일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주민 공람을 5월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운영허가 기간은 1호기 2025년 12월22일, 2호기는 2026년 9월11일에 각각 만료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으로 인

한 일반주민 피폭선량 등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방사선 환경에 대한 안전성 입증 문서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을 마련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함평군청 안전관리과, 손불면사무소, 신광면사무소, 해보면사무소, 월야면사무소 및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